

수철-어천 구간

■ 코스 지도

풍부한 생태계와 삶이 남명 조식 선생과 만나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 소개	수철-어천 구간 소개	
2	지막마을	지막마을의 유래	생태
3	춘래대	남명 선생과 덕계 선생의 우정	민속자료/문화재
4	설애대	설애대와 쑥국	민속자료
5	해동선원	마을 속 거대한 석상들	민속자료
6	대장마을	노인들만 사는 마을	생태
7	경호강	경호강 이야기	역사/민속자료
8	한발 마을	당산제와 칠성바위	민속자료
9	내리 마을	절대로 우물을 파면 안되는 마을	생태
10	바람재	바람이 전하는 말	민속자료
11	성심원	성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민속자료
12	어천마을	다소 모자란 냇물이 흐르는 마을	민속자료

1. 구간 소개

‘지리산 둘레길에서 만나는 야외 전시장’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그림 한 장이 내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

성심원에서 열리는 미술전시회.

물론 대단한 작품이 전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술봉사활동을 하시는 미술 관련인들이 성심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작업했던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

이미 찢던 둘레길 답사 계획을 뒤로하고 수철과 어천구간의 지도를 펼쳤다.

지리산 서쪽자락을 따라 흐르는 경호강을 곁에 두고 걸으면서 산청지역의 크고 작은 5개 마을을 만나게 될 구간.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나들이를 준비중인 성심원을 만나고 싶다.

천천히 산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2. 지막 마을

야트막한 고갯길을 몇 번 오르고 내리다 보면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위에 올라앉은 아담한 다리를 만나게 된다. 다리 너머로는 마을회관이 지나는 나그네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려는 듯 활짝 문을 열고 서 있다. 마당엔 소박한 평상까지 놓여있다. 지막마을이 마련해 준 이 소박한 쉼터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잠깐 평상에 앉아 시골 마을의 푸근한 정경에 취해 본다.

지막마을. 글자 그대로 풀면 ‘종이로 막을 친 마을’이다.

예로부터 종이를 만들어 국가에 바치는 특수 지방 행정 단위를 ‘지소’라고 했는데 이를 ‘지막’이라 부르기도 했다

2, 30년 전만 해도 지리산 자락엔 닥나무를 삶아 종이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마을이 많았다니, 이곳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였다.

삶은 닥나무 섬유를 발로 건져 종이 모양을 만들고 나면, 나무판에 붙인 다음 햇빛에 널어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집마다 널어놓은 종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을 전체에 하얗게 막을 친 것처럼 보였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지리산이 만들어 낸 푸르디 푸른 초록의 배경 속에서 눈발처럼 흰빛을 뿜어내었을 마을의 모습. 생각만 해도 눈이 부셔오는 듯하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 마을을 덮고 있던 거대한 흰색막은 종이 가 아니라 지초로 된 것이었다고 한다. ‘지초’. 초여름에 피는 지초의 흰 꽃은 손톱만큼 작지만 그 향이 깊어 ‘백리향’이라고도 불린다. 지초가 핀 땅을 밟으면 그 향기가 발끝에 묻어 백리를 가도록 이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지초는 향기뿐만 아니라 그 효능도 남달라서, 산삼에 버금가는 약재 중의 약재로 꼽힌다.

그 뿌리를 달여 마시면 우울함과 불안으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단 한 번의 약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데, 어쩌면 지초는 이 평화로운 시골마을 보단, 잠 못 드는 도시의 밤에 꼭 필요한 약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 산세 맑은 지리산 깊은 골에 그야말로 지초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하니, 그 뿌리들을 엮고 엮어서 말려놓은 모습이 아마도 거대한 막처럼 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으리라.

하지만 지막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언제부터인가 야생지초를 찾기가 힘들어졌고, 그 후로 이 마을사람들은 지초 대신 닥종이를 널어 말리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마을 이름이 ‘지초’의 ‘지’ 자에서 종이를 뜻하는 ‘지’ 자로 바뀌게 된 것도 그 때쯤이리라. 그저 한 번쯤 듣고 흘려버렸을 법한 마을 이름에 사람들의 생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3. 춘래대(春來臺)

지막마을을 흐르는 냇물 소리를 따라 홀린 듯 걷다보니 눈앞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큰 바위가 나타난다. 바위 가득 한자들이 적혀있다. 짧은 한문 실력으로 읽을 수 있는 몇 글자를 해독해 본다. ‘춘. 래. 대.’ 봄이 오는 전망대? 이 설레이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위 위로 올라본다.

몇 걸음 되지 않는데도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다. 후우, 한숨 돌리고 고개를 드니, 아담하단 표현이 껍이나 잘 어울리는 정자가 눈에 보인다. 오래도록 돌보지 않아 많이 쇠락한 모습이지만 초목에 둘러싸여 아늑하다 못해 비밀스런 느낌까지 든다. 여기저기 걸려있는 현판의 빼곡한 글귀들도 예사롭지 않다.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 언제 나타났을까, 두루마기에 갖까지 쓰신 어르신이 대청마루에 앉아 계신다. 얼떨결에 허리 숙여 인사를 하니 어르신은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네신다.

덕계 제가 아가씨를 놀라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 산청에 사는 오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덕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춘래대’ 라는 이름은 남명 조식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제가 붙인 이름이지요. 남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다보면 겨울 끝에 봄이 오듯 눈과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아니, 오백 년 전의 덕계 선생이 내 눈 앞에 나타나다니.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런 나를 아랑곳 않고 선생은 태연히 말을 잇는다.

덕계 이렇게 마루 끝에 앉아 있으니 그 때가 생각나는군요. 아마 을축년이었을 겁니다. 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지요. 그러니까 1565년 겨울 남명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그만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하신다는 전갈을 받게 되었지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제 입에선 시가 한 수 터져 나오더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남명 선생님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그 시를 읊어봐도 될까요?”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끄덕인다.

*덕계 멀리서 가인을 기다리니 한 해가 저무는 때,
도리어 차가운 비에 입으신 옷 젖지나 않을까.
구름 속 돌길에 이끼 끼어 미끄러울 텐데,
도천을 바라보며 대나무 사립문에 나와 있네.*

덕계 선생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와 닿아서일까, 초목들도 몸을 흔들며 쇠아~쇠아~ 추임새를 넣는다.

팬스레 마음이 아려와 눈을 감고 소리에 몸을 맡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덕계 선생은 사라지고 없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일까? 덕계 선생이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본다. 아직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스승과 제자사이를 떠나 깊은 정을 나누었던 두 사람, 남명 선생과 덕계 선생은 춘래대 정자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속내를 나누며 마음의 티끌들을 흐르는 계곡물에 씻어 보내곤 했으리라. 또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 내 속의 번잡한 마음 한 자락도 바람에 씻겨가는 듯하다.

4. 설애대(雪艾臺)

다리 너머로 솟아있는 바위 언덕이 예사롭지 않다.

건너가 볼까? 제법 길게 뻗은 다리를 지나 바위벽에 다다른다. ‘설애대’ 라는 세 글자 옆에 ‘효부 조씨가 쌓인 눈 사이에서 쑥을 구한 자리’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눈 설(雪)자에 쑥 애(艾)자’

이름만으로도 어떤 사연을 간직한 장소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300여 년 전 이곳 평촌마을로 시집온 효부 조씨는 효심이 지극하여 오래 병석에 누워계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매서운 강바람에 눈마저 몰아치던 어느 겨울 날, 시어머니가 쑥국을 찾았다.

쑥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긴 했지만 조씨는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었다. 쑥은 봄의 따뜻한 기운 아래서야 쑥을 틔우는 봄나물이 아니었던가. 손발이 뭉뚱 어는 줄도 모르고 백방으로 쑥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조씨는 끝내 이 바위 아래서 엉엉 눈물을 쏟아놓고 말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을 거두고 발아래를 내려 보는데, 하늘의 조화였는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쑥이 바로 이 바위 밑에서 파릇파릇 수줍게 올라와 있었다. 조씨는 기쁜 마음에 쑥을 캐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님께 쑥국을 끓여들였고 이에 어머니는 병이 완쾌되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런 익숙한 얘기.

생각해 보면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나 약재를 구해온 효자, 효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다. 흔하디 흔해 이야기를 들어도 별다른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 설애대에서 효부 조씨의 이야기를 곱씹다 보니 퍼뜩 이런 생각이 든다. 쑥이 아무리 맛난 나물이고, 아무리 좋은 약재라 해도, 오래오래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이 그저 약 한 번, 밥 한 번 먹고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오직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병마와의 싸움 앞에서 사람은, 목숨을 내려놓지 않을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외로운 싸움의 시간을 같이 해준 효성스런 아들이야말로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지금, 내 삶에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의지가 되어주고 싶은 이는 누구일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나의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 있는 이의 마음속에 파릇한 쑥 한 포기 틔워 올리기를 기도하면서.

5. 해동선원(海東禪源)

과하지도 지루하지도 않게 흘러가는 능선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제법 넓은 뜰, 그 가운데 안겨 있는 나즈막한 시골집들, 이곳은 평촌마을이다. 평화롭게 이어진 지붕의 선들 사이로 삐죽이 올라와 있는 석상이 눈에 띈다. 마을 한 가운데 딱하니 자리잡은 이 석상의 정체는 뭘까? 발걸음을 옮겨본다.

와, 부처들이 반상회라도 열고 있는 것일까? 마당 가득히 다양한 모습의 불상들이 늘어서 있다. 불상들 주위로는 쥐, 소, 말, 호랑이 같은 모습을 한 십이지신상들이 이 엄숙한 모임을 호위하고 있는 듯하다.

사찰 치곤 그 모습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물과 불상들 사이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나타난다. 그 옆으론 책 읽는 소녀의 동상도 보인다. 아, 이 반가운 얼굴들이라니! 이 건물의 정체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던, 작은 시골마을의 초등학교.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고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는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지나가는 마을어르신께 여쭙보니 지금은 ‘선원’이 되었다 하신다.

‘선원’은 불교에서 스님들의 참선을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배움의 터전을 깨달음의 터전으로 탈바꿈시킨 뜻있는 이는 누구일까? 그는 어이하여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사찰을 차리게 된 것일까? 사찰을 짓는다 하면 으레 산중에 터를 닦고 귀한 목재를 구해다 한옥을 닮은 모습으로 꾸밀 터인데, 어째서 이 사찰은 폐교의 모습을 그대로 둔 것일까? 이런 저런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돈다. 그러다 학교 입구에 걸린 ‘해동’이라는 현판 글씨를 발견한다.

‘해동’ 이라면 ‘발해(渤海)의 동쪽나라’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이었다. 삼국시대에 불리던 이 별칭과 연관되는 고승이라면 바로 해동조사(海東祖師)로 지칭되는 이름의 큰 스님, 원효대사가 아닌가.

원효대사의 높은 학식과 덕망을 알아보고 중국인들이 붙여주었다는 별명이 바로 ‘해동’이다. 귀족의 편한 삶을 버리고 저자거리로 뛰어들어 춤을 추며 중생들과 만났던 원효대사의 행적을 떠올려보니, 이 사찰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들어선 사연을 알 것도 같다.

안락한 극락세계가 아닌 어지러운 속세에서 도를 얻어야, 그 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찰을 이곳에 자리잡게 한 것은 아닐까?

시원한 약수로 목을 축이고 다시 길을 나선다. 오른손을 펴 든 불상이 우리의 여정에 안녕을 바라며 작별인사를 하는 듯하다. 떠나는 발걸음이 왠지 든든해진다.

6. 대장(大壯)마을

멀지 않은 곳에 산청이 건너다보인다.

이미 완전히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산청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대장마을. 산 위로 소담스레 올라앉은 옛 마을은 변해버린 산청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마을 앞 논밭까지 밀고 들어와 있는 공장지대와 마을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데 길 한쪽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나처럼 도시에서 온 여행자일까, 말끔히 등산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마을 어르신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일까. 호기심에 넋지시 옆으로 다가가 본다.

남자 이쪽에 이걸 다 공장인가요?

주민 저건 식품공장, 저건 또 마대 공장, 또 그 뒤에 또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그 분양중이고

남자 그럼 저기가 옛날에는 뭐였었나요?

주민 옛날에는 짝 다 논이었지. 이 마을에서도 짓고 저 짝 마을에서도 일하고 하고 그랬는데. 이젠 없어요, 짝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젠 농사짓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젠 논도 없어. 짝 다 들어갔으니까

남자 예전엔 여기 앞에 강에서 고기도 좀 잡고 하셨죠?

주민 옛날에야 낚시도 하고 투망도 던지고 했는데 이제 오염이 되가지고 고기가 없어.

남자 이쪽에 학교는 좀 있나요?

주민 학교? 이쪽에 중고등학교는 산청에 꺼랑 다 통합돼 가지고 산청 중고등학교가 있고.

남자 옛날에는 꽤 큰 동네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주민 지금 여기 사는 집수가 옛날 비교하면 삼분의 일밖에 안돼. 20호정도 있지, 그전에는 60몇 호까지 됐다고. 옛날에는 여 평지 쪽에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한다고 다 뜯어내버리고...

남자 예전엔 주로 무슨 농사지으셨어요?

주민 옛날엔 주로 논농사였지. 산에서는 밤을 많이 했었는데 저 짝에 다 밤산이었는데, 요새 인력이 모지래 가지고.

남자 네에...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려서...

주민 우리 마을에 지금 60대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고 전부 70대 이상이라.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

그냥 자기 식량이나 한다고 논 한 두 쪼가리 나락 농사 지어서 식량하고 그러는 거지.

유난히 마을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조금만 더 배불리, 넉넉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공장으로 하나 둘 흘러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 옛날 물과 들판이 함께 출렁이고, 사람들의 온기로 들썩였을 대장마을. 도시화로 인해 이 곳 둘레길의 시골마을들도 하나 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7. 경호강(鏡湖江)

이제 절반쯤 걸어온 것일까. 다리가 묵직하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주저앉는다. 이 구간을 걷는 내내 곁에서 길벗이 되어준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속 깊이 편안함이 찾아 든다. 다리를 쭉 뻗고 지친 다리를 토닥이는데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불쑥 내민다. 고개를 들어 보니 가무잡잡하게 얼굴이 그을은 남자가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서 있다.

“경호강이에요. 공식적인 이름은 ‘남강’ 이긴 한데 이쪽 사람들은 경호강이라고 불러요.”

산청에 사는 문화해설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친한 친구를 소개하듯 경호강 얘기를 늘어놓는다.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게 산천을 비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경호강이 얼마나 좋으면요, 옛날에 한 고을 수령이 달빛에 일렁이는 경호강에 취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뱃놀이를 했는데, 배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관아에서 쓰는 중요한 도장을 강물에다 빠뜨려서 파직까지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일대 사람들이 이 강을 아끼는 이유가 경호강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경치 때문만은 아니라며 남자는 말을 잇는다.

“지리산도 그렇지만 돌레길 지나다 보면 마주치는 강들이 다 여기 지리산 사람들의 살림밀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붕어, 미꾸라지, 쏘가리 할 것 없이 민물고기들이 꽤 많이 잡히거든요. 어탕국수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세요. 이 경호강 근처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예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뼈째로 푹 고아서 매운탕을 만들어서, 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데, 그 맛이 뭐라고 해야 할까, 담백하면서도 화끈하다고 할까요. 암튼 안 먹고 집에 가면 본인 손해라니까요.”

마치 김이 펄펄 올라오는 어탕국수 앞에 앉은 양 남자는 군침까지 삼켜가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오시다 많이 보셨죠. ‘래프팅’ 간판. 여기 경호강이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강이거든요. 왜 서울 사람들은 흔히 래프팅한다 그러면 한탄강이나 동강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경호강은 물도 많고 강폭도 넓고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없어서 아주 뽕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맛에 아는 사람들은 다 이 경호강으로 찾아와요. 덕분에 여기 사람들도 살림살이도 좀 좋아졌죠.”

마침 눈앞으로 사람들을 가득 태운 배 한 척이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내려간다. 사람들의 즐거운 비명이 지리산을 타고 올라 메아리친다.

“이렇게 래프팅과 어탕국수가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요, 그전에는 이 경호강이 금광이었어요, 금광.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옛날에 기록에 보면 '경호강가에 늘어선 모래밭에서 금싸라기가 많이 나왔다' 는 얘기가 있어요. 사금이 많았다는 얘기죠.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한 뭉텨서 나간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경호강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물 속에 쟁반을 흔들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함께 설레었으리라. 햇빛 아래 눈부시게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금조각들은 소박한 시골살림에 약간의 여유를 주었을 테고. 지금도 경호강 주변을 걷다보면 간혹 햇빛을 받아 한 점씩 반짝거리는 금 조각들이 보인다고 한다. 발 벗고 들어가 시골 농부의 작은 흐뭇함을 나도 한 번 나눠가져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 피식 웃는다.

8. 한밭(大田)마을

한밭마을 당산나무 앞에 서니 당산제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지리산 둘레길에 자리잡은 마을들을 지나칠 때면 노상 만나게 되는 당산나무. 마을의 수호신인 이 나무 앞에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 씩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올린다.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가면서 이런 당산제의 모습도 함께 사라져 버린 마을이 많지만, 여기 한밭마을에선 정월 대보름이면 아직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전만큼의 화려함은 없지만 한 해의 기원을 담은 제사이니 만큼 그 정성은 예전 못지않다고 한다. 제사를 이끄는 사람은 당산제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며 아픈 사람이나 상을 당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당산제 전날부터 준비한 정갈한 음식들을 깨끗이 닦아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비로소 당산제가 시작된다. 조상신에게 몸을 낮추어 절을 하고 소원을 담은 하얀 종이를 태워 올리고, 깨끗한 황토를 당산나무의 발치에 묻으며 사람들은 올 한 해도 평안히 흘러가기를 빌고 또 빌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당산제의 전통을 지켜온 마을의 수호신 치곤 한밭마을의 당산은 좀 왜소해 보인다. 원래는 이곳의 당산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위풍있는 큰 나무였는데, 87년 무섭게 불어닥친 태풍 쉼마의 위력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쓰러진 나무는 맞은 편 눈두렁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는데, 수 백년을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당산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지만 한밭 마을 사람들은 이내 슬픔을 거두고 쓰러진 나무가 있던 자리에 지금의 이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손자 당산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쓰러진 할아버지 당산의 영험한 기운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이름이다.

젊은 당산의 싱그런 기운을 한 번 받아볼까. 나무 아래 느긋하게 엎드린 바위 위에 앉아 본다.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다 웃으며 한 마디를 던지신다. **“색시, 꼭 배 모양 칠성바위에 묶여 있구만.”** 칠성바위라고? 앉은 자리를 내려다본다. 오랜 만에 마주친 말동무가 반가우셨을까, 어르신은 칠성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으신다.

구성진 사투리 탓에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르신의 말씀이 끝났을 즈음엔 이 바위의 정체를 어렵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이 바위는 한밭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7개의 바위 중 하나인데, 밤하늘을 지키는 북두칠성처럼 이곳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에 칠성바위란 이름이 붙은 것이라 한다. 한밭마을은 풍수지리상 물 위를 떠다니는 배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 땅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바위들이 단단히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일곱 개의 바위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개 밖에는 없는데, 나머지 다섯 바위들도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묻혀 있단다.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바위들을 떠올리며 툭툭 발인사 한 번 던져본다.

9. 내리마을

바람재를 따라 길게 늘어선 이 마을은 내리, 그러니까 안동네라는 친숙한 이름을 가진 마을이다. 경호강을 따라 걷는 이곳 '수철-어천' 구간에선 강과 제법 떨어진 몇 안 되는 마을이다. 큰물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어서 일까? 이 마을은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암전히 들어앉아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마을에 독특한 금기사항이 있다고 한다.

바로 '절대 우물을 파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물터가 이곳 내리에는 없다. 꼭지만 들면 칼칼 쏟아지는 수돗물만으로 생활하는 요즘 사람들에게겐 우물이 없는 게 뭐 대순가 싶겠지만, 그 옛날엔 사정이 달랐다. 저 아래 떨어진 경호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을 테니 말이다. 다행히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어 그런 수고는 덜었다고 한다.

이쯤 되니 새록새록 궁금증이 솟아난다.

지하수를 파서 쓸 수 있을 정도라면 땅 속을 흐르는 물의 양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 텐데, 하필 왜 우물은 파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마을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내리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땅이 금은보화를 잔뜩 실은 배의 모습을 닮아 있으면 그곳에 부귀영화가 모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배는 늘 물위에 떠 있어야 하는 불안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배 모양을 한 시골 마을들은 마을 가운데 돛대의 역할을 하는 탑이나 솟대를 세우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 가라앉지 않도록 기와집 대신 초가집만 짓기도 했다.

이곳 내리에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물을 판다는 건 배의 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언뜻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기원이 담긴 행위라고 생각하니 슬며시 미소를 머금게 된다.

10. 바람재

진한 밤꽃 향기가 춤을 추며 내려앉는 바람재를 지난다.

고개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이곳 바람재엔 숨을 할딱이며 넘어야 하는 가파른 길 하나 없다. 산들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야트막한 경사들을 넘다보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단숨에 고개는 끝나있다.

산책을 하듯, 이웃동네에 마실을 가듯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길가에 서 계시던 노인 한 분이 한 마디 던지신다.

“색시는 바람 피해 날 잘 잡았네. 여기 바람이 한 번 들이치면 걷는 게 뭐꼬, 눈도 못 뜬대 이.”

두고두고 기억날 만큼 매서운 바람이 치는 곳이라 ‘바람재’ 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어르신 의 설명이다. 경호강을 따라 흘러가는 강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오늘이 참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무리 매서워도 이 고갯길을 넘는 바람은 마을 사람들에게겐 없어선 안되는 소중한 존재란다. 논일을 하러가거나 고개 너머 장을 보러 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곳 바람재를 넘어갈 때면 한 번쯤 멈춰 서서 경호강 위를 지나는 바람의 모양새를 지켜본다고 한다. 바람이 그려 놓은 하늘의 구름그림을 보며 날씨를 점치기 위해서란다. 하긴 농사꾼의 하루에 해와 비와 바람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저것 보래. 저기 강 건너 둔철산이랑 여기 응석봉 사이에 구름이 낮게 흘러가는 걸 보니 비가 오겠어. 어허 구름이 산허리께에 걸쳐 있는 걸 보니 적잖이 쏟아지겠구마는. 내일은 꼭 우산 챙겨서 텅겨.”

어르신께선 경호강 바람이 TV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며 자랑스럽게 내일의 날씨를 점치신다. 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 순리에 따라 살고 있는 지리산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내 컷가에 어르신이 흥얼거리는 흘러간 유행가 한 소절이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11. 성심원(聖心院)

“*님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성심원 구석구석 이런 글귀가 눈에 띈다. 한가로운 유럽의 마을처럼 평온한 풍경 속에서 지내면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는 걸까? 이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가 유난히 밝다.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고 누가 살고 있는 곳이길래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일까? 호기심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데 신부님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성심원은 한센인들이 살아온 마을입니다. 한센인들은 예로부터 나병환자라고 불렸죠. 나병환자는 악성 피부병이라 해서 세인들로부터 항상 무시당해왔고 외면당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센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병이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닌데 보기에 좀 흉칙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성심원은 1959년도에 우리 작은형제회 신부님들이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센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선글라스를 낀 어르신들이 간혹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들을 피해 모여든 한센병 환자들이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어낸 삶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의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마다에서 그들의 눈물과 땀이 피어오르는 듯하다. 신부님께서 말씀을 이으신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미 사회에서 결혼을 했던 분들이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라면 처자식이 있고, 여자라면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나병환자라고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린 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도 모르게 행방불명되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정착마을이나 이런 시설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아픔들이 있죠.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시설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바깥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성심원만이 내가 평생 살아갈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30년 이상 한센인들과 함께 해온 ‘유아루소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 처음 와서 보니까 이 환우들이 재혼을 하고 세 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두세 번 다 결혼하는 줄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센인들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풍경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웃음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픔 속에서 보내야 했을까, 마음이 아려온다.

하지만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마음 덕분일까, 이제 성심원은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둘레길 안내센터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이곳 성심원 안에 마련한 것이다. 둘레길과의 인연을 통해 이곳 사람들이 체득한 공평한 사랑의 가치를,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누어주고자 성심원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12. 어천(漁川)마을

어천마을. 이름만 들어도, 경호강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큰 욕심 없이 한가로이 고기를 잡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은 래프팅으로 더 유명해져 버렸지만 일이 십년 전만 해도 이 경호강을 대표하는 건 바로 쏘가리였다.

‘쏘가리’. ‘쏘가리’. 그 이름을 소리 내어 읽다보면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쏘가리는 예로부터 ‘궁궐의 고기’, ‘비단 비늘을 가진 고기’ 라고 불릴 정도로 민물고기 중엔 으뜸으로 꼽힌다.

맛도 좋아서 중국에선 ‘물속에서 건져 올린 돼지고기’ 라고 불릴 정도였다니, 그 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 안 가득 침이 고인다. 크고 작은 바위들 사이로 날렵하게 미끄러지는 쏘가리들의 우아한 몸짓, 낚시꾼들에겐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황홀한 풍경이었으리라. 이 마을이 ‘어천’ 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쩐 이 쏘가리의 유명세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천’ 이란 이름을 갖기 전 이 마을은 ‘어리내’ 또는 우천(愚川)이라 불렸다고 한다.

‘다소 부족한 혹은 다소 모자란 냇물이 흐르는 마을’ 이라니, 어천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이런 겸손한 이름을 붙인 것일까? 거기엔 이름만큼이나 소박한 이유가 있다.

어천 마을을 지나다 보면 계곡 하나가 마을의 품에 안기듯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계곡은 길지도 짧지도 않고 또 계곡물이 아주 넘치지도,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골짜기다. 이런 계곡에 대한 아쉬움이 바로 ‘어리내’ 라는 이름 속에 담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골짜기를 흐르는 물은 마을 사람들이 나눠 쓰기엔 부족하지도 않았기에 사람들은 이 계곡에 만족하며 살았다고 한다. 일부러 큰 저수지를 만들지도 않고 말이다.

이곳 어천마을이야 말로, 헛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추어 사는 삶이 녹아있던 곳이 아닐까. 이런 옛 사람들의 철학이 무색하도록 빼곡히 들어서고 있는 펜션과 별장들이 아쉬울 따름이다.